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발표“갈 곳 없다…휴전 없이 안전은 없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13일(현지시각) 라파흐에 예고된 폭격을 피해 급한 짐들을 챙겨 피란을 떠나고 있다. 라파흐/AFP 연합뉴스이스라엘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예고된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서 지난 1주일 동안 36만명의 주민이 피란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UN)이 밝혔다.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이하 기구)는 1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주일 전 대피령이 내려진 뒤 36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라파흐를 탈출했다”고 밝혔다. 기구는 이어 “가자 북부의 폭격과 다른 대피령으로 더 많은 이동이 생겼다. 수천 명의 가족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여기엔 갈 곳이 없다. 휴전 없이 안전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라파흐에서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뿌리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지정된 인도주의 구역인 지중해 인근 마와시와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 인근 등으로 피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라파흐 주민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가 대피령을 전달받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인원이 피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라파흐에는 가자지구 주민 230만여명 중 절반 이상인 140여만명이 살고 있다.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사망자가 57명, 부상자가 82명 늘어나 지난해 10월7일 가자전쟁이 시작된 뒤 사망한 사람은 3만50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7만8827명이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또 병원과 구급차를 작동시킬 연료와 수송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가자지구 내 의료시스템이 “몇 시간 안에”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 내 36곳의 병원과 기초의료센터 가운데 3분의 1만이 돌아가고 있으며, 이들마저도 의약품과 기초적인 의료용품, 연료와 인력이 심각한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날 밤 전화통화를 하며 “라파흐에서 하마스 잔당을 겨냥한 ‘정밀한 작전’ 등 가자지구 내 전개된 상황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날 전했다. 이스라엘은 라파흐 지상전을 벌이지 않고서는 ‘하마스 소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며 지상전 강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있다.